

## 무언의 대화 Silent Dialogues

### 천경우의 퍼포먼스적인 작품들

잉고 클라우스, 베저부르그 현대미술관 큐레이터

두 사람이 악수를 한다 – 이런 인사법은 많은 나라들에서, 주로 서구에서 흔하다. 사람들은 이러한 몸짓으로 상대방에 개방적 자세와 존중을 나타내 보인다. 처음 만날 때에 이런 식으로 손을 잡으면서 두 사람은 약간 가까이 서면서도 동시에 적당히 필요한 거리도 지킨다. 악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대체로 무의식적으로 조직하는 여러 의례 행위 중 하나이다. 관습이 된 행동들은 우리가 이웃들과 지내는 방법을 분명하게 새겨줄뿐더러,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들을 제어한다. 한국 작가 천경우는 이런 맥락들에 관심을 갖고, 여러 작품들에서 이를 주제로 삼고 있다. 일상의 행동들과 몸짓은 그 동안 작가가 십오여년 전부터 해 왔던 퍼포먼스들의 출발점이다.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과정의 이 퍼포먼스는 개인 또는 여러 그룹으로 실행될 수 있다. 대개는 관중도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지향적 특성과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게 됨은 작가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다. 작가의 작품은 협업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작품에 투영하여, 자신의 미학적 실천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들을 창조한다. 비록 그 만남이 종종 순간적이라 할지라도, 이 퍼포먼스는 참가자들에게 여기와 현재를 너머 지속되는 인상을 남긴다.

### 비범한 만남들

2009년 퍼포먼스 작품인 <Greetings>는 마드리드에서 처음으로 실현되었다. 20명의 퍼포먼스 참가자들에게 그 중에서 모르는 사람 한 명을 짝으로 고르라고 청했다. 곧이어 그들은 20분 동안 손을 내밀고 악수한 채 있어야 했다. 사용한 수단들은 아주 간단한데도 서로 인사하는 몸짓에서 예전에 접해보지 못했던 강렬함과 가까움이 담긴 순간이 생겨났다. 이 때에 천경우는 이들이 시시콜콜 나누는 이야기 내용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대신에 그는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한 의식적 지각을 중요하게 여겼다. 참가자들은 낯선 이에게 어떤 상태로 마주서 있는지를 몸으로 체험해야 했다. 상대방에게 처음 말을 건넬 때 어떻게 하는지, 자신의 눈길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이 어떤 느낌인지, 타인의 손의 따뜻함이 어떤 느낌인지 – 그런 것을 체험해야 했다.

이미 2년 전에 그가 시작한 퍼포먼스 <Versus>는 비슷한 발상을 따르지만 효과에서는 더욱 인상적이었다. 이 퍼포먼스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여러 나라와 도시들에서 볼 수 있었다. 뉴욕, 바르셀로나, 취리히 등을 거쳐 서울에서 마지막 퍼포먼스를 치렀다. 진행 과정은 매번 똑같았다. 참가자들은 서로 마주 놓인 두 개의 긴 벤치에 앉으라는 요청을 받는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상대방의 어깨 위에 기대고 15분 동안 앉아 있었다 – 눈을 감고 가능하면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 말 없이.

외부에서 보자면 이 무리들은 명상에 빠진 고요한 섬같이 보였다. 뉴욕 타임즈 스퀘어는 이 퍼포먼스가 자동차와 보행자로 가득한 대도시의 분명한 반대상이 아니겠느냐 보았다. 이 장면은 언뜻 보기에 조화롭게 보일뿐더러 공동체 속에서 화해하는 것 같다고 오해되지만, 참가자들에게는 규칙에 따라 수행해야 할 과제였다. 작가로부터 요구된 신체적인 접근은 친구들과 지인들 사이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다. 낯선 이들에게는 자기를 알려주지 않으려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 저절로 적당한 거리를 지키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누구든지 그런 경계를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특별한 방식으로 상대방을 체험한다. 그런데 이 순간에서 생각해 볼 거리가 또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방은 물론 자신도 더욱 강렬해진 지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자신에게서 나는 냄새에 예민해지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것에도 예민해지며, 심장 박동 소리, 신체들의 피곤한 부담에도 신경이 쓰인다. 많은 이들이 만날 때 갖게 되는 이런 아주 가까운 느낌을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았다. 한편 그러한 상황에서 엄청난 내적 긴장에 놀려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다양한 반응과 지각들 또한 작가가 자신의 퍼포먼스를 서로 다른 나라와 문화권에서 실행했던 이유 중 하나이다.

이 퍼포먼스는 사람을 뜻하는 한자 '人'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 한자의 모양은 앞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또한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서로를 받쳐주고 균형을 유지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이 퍼포먼스의 출발점이다. 이 퍼포먼스는 각각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누구나 자신을 단점과 장점, 소망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로서 다시 바라볼 때, 반대편에서 있는 다른 이와와의 만남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기도 한 것이다. 천경우의 예술은 이에 대한 예이다. 사람들이 함께 퍼포먼스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깊은 사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물론 이 자리는 잠깐 동안만 있다가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이 사라지고 만다. 사진을 찍고, 영상을 남기며, 이야기를 쓰지만, 이런 것들은 그런 순간들을 불충분하게 기록할 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순간들은 기억 속에 다양한 흔적을 남기며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 사진을 위한 퍼포먼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전위 예술 운동 이래 퍼포먼스는 예술적인 행위의 형태로 국제적인 예술 창작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구성요소가 되었다. 앨런 캐프로의 해프닝이나 다양한 플럭서스 페스티벌 콘서트들, 그리고 요셉 보이스의 프로젝트들, 또 그가 남긴 유명하면서도 그만큼 오해받을 수 있는 "누구나 예술가이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라. 예술의 한계를 넘어서기, 사회 참여, 그리고 예술과 삶의 일치하는 이런 맥락에서 그저 중요한 몇 개의 핵심어들일 뿐이다. 천경우의 퍼포먼스는 개별적으로 뜯어보면 이런 역사적인 입장들에 관련을 맺고 있다. 그렇지만 그의 작품은 그런 하나의 퍼포먼스 발전의 연속선 위에서 있는 것이 아라, 그를 국제적으로 명성 있게 만든 특수한 형식의 천경우 사진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래 그는 연작의 사진들과 개별 사진들을 작업해 왔다. 그 중에는 상대적 흐릿함

을 보인 인물사진들도 있었다. 이러한 효과는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몇 시간, 아니 며칠 동안이라는 전례 없이 긴 노출시간의 결과이다. 긴 노출시간이 19세기 사진의 초창기 기술수준으로는 극복할 수 없었던 문제였다면, 천경우에게는 작품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적인 예술적 고민의 결과이다. 그는 사진에서 그 "결정적인 순간"(앙리 까르티에 브레송)을 포착하려 들지 않는다. 보통 기록적인 사진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다. 천경우에게는 시간과 지속의 체험이 결정적이다. 사진은 이를 위한 적합한 보조수단이다.

때때로 그는 스튜디오에 사람들을 초대해 촬영하는 동안 사적인 것에 관해 이야기해 보라고 청한다. 하루 일상이 어땠는지 (*Six Days*, 2003), 어머니에 관해(*In/finite*, 2006) 말해보라고,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에게는 자신이 어떻게 생겼을지 묘사해 보라고 (*Believing is Seeing*, 2007) 작가는 청한다. 아무 말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사진작가와 인물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지각, 집중 그리고 투영의 흔적으로 인한 전례 없는 결속 관계가 생긴다. 이는 사진 속에 압축된 형식으로 새겨진, 주의 깊은 관찰자에게 감지될 수 있는 무언의 대화이다. 천경우는 "사진을 위한 퍼포먼스"에 대해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스튜디오에서 가졌던 경험과 만남은 공공 장소에서 벌어지는 행동들로 확장된 귀결이다. 실재로 작가가 사용하는 매체들은 이제 명확히 구별할 수 없다. 퍼포먼스, 영상, 사진, 설치는 다양하게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서로에 대한 조건이 되며 때로 혼종(混種) 형식이 생겨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 비디오 작품의 근간은 퍼포먼스이다. <*Perfect Relay: Citius, Altus, Fortius* (2012)>는 런던 올림픽에 맞춰 기획된 작품이다. 이 제목이나 맥락은 운동 경기에서 갱신되는 최고 기록을 짐작케 하지만, 이는 작품의 주제가 아니다. 이와는 정 반대로 소재는 무엇보다도 지극히 일상적인 하나의 행위이다. 그리고 단순하지만 의미심장한 변화가 이 일상적인 행위를 방해하면서 전혀 새로운 경험이 된다. 천경우는 여러 나라 어린이들(18개 하계올림픽 주최국 어린이 18명)을 초대하여 "더 빨리, 더 높이, 더 세게"라는 올림픽의 익숙한 이 표어를 각각 자기 나라말로 종이에 쓰게 한다. 펜은 마치 계주경기의 바톤처럼 전달되어 첫번째 아이에게 다시 돌아간다. 여기서 특별한 어려운 조건은 참가자가 익숙하지 않은 "반대" 손으로 글씨를 써야 하는 일이다. 보통의 조건에서는 직관적이고 어려움 없이 가능한 일, 순간 엄청난 집중력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실수가 생겨나고 쓰여진 단어는 잘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작가는 성취해내겠다는 멈추지 않는 의지와 열정을 의미심장하게 좌절시키면서 이러한 상황의 이면을 제시하는 것이다. 부족함과 실수는 생산의 동력으로, 이는 예술적인 행위 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새로운 깨달음과 창조적인 과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Perfect Relay*>는 치열한 성과 중심 사회의 원칙에 대한 대안적으로서 강한 효과의 관용(Toleranz)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경쟁 대신에 서로 나누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체험을 제안해 보는 것이다.

## 부재의 미학

천경우의 퍼포먼스 대부분은 현장에서 영원히 남을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는다. 그런데 예술은

대중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반드시 어떤 물질적인 형태를 취해야 하는가? 늦어도 1960년대 이후 최근까지 우리는 직접 보여지기를 탈피하는 예술적인 전략들에 직면해왔다. 이것을 우리는 "부재의 미학" (피터 바이벨) 이라 말할 수 있겠다. 사실, 현대 예술의 많은 작품들은 존재와 부재의 역동적인 분야 안에서 작동한다. 잘 알려진 대로, 하나의 개념이나 단순한 지시들을 바탕으로 한 개념적인 예술 작품들이 있다. 따라서, 예술은 반드시 의미가 감지되는 구체적인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전제할 수 있다. 위대한 솔 르위트의 개념미술: *아이디어는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 (1969)*에 관한 이론적 관찰을 기억해 보면 된다. 마찬가지로 로렌스 와이너와 마이클 애셔의 작품들 또한 미학적 관행의 초기 예로서, 가시적인 이미지와 오브제의 제작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빈 공간은 실제 예술적 사건이 된다.

천경우는 <보이지 않는 말들 *The Invisible Words*>에서 이러한 측면들을 그의 예술적 고려 사항으로 여긴다. 이 프로젝트의 과정에서 창출된 모든 것들은 독일 북부 브레멘 시의 땅 속 에너지 파이프 라인에 실현되어, 도시의 도로포장 아래로 사라졌다. 브레멘은 여러 해 동안 예술가들이 살고 작업한 도시이기도 하다. 오늘날 도시의 에너지 시스템들(전기, 수도, 가스 및 난방시설)은 모든 가정을 연결하는 밀집된 지하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전기, 수도, 가스 및 난방의 기본적인 공급은 공공 인프라의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이 네트워크는 고장 날 때만, 대부분 불쾌한 방식으로 그 존재가 사람들에게 인지된다. 천경우는 에너지 공사 직원 2,700명에게 편지를 보냈다. 출발은 간단한 질문이었다: "어떤 말이 당신과 타인에게 온기나 힘을 주는가?" 참가자들의 답변을 모아 전기, 수도, 가스 및 난방의 파이프 라인에 붙인 후, 건설 계획에 따라 그 문구들을 도시 지하에 묻었다. 언젠가 그 단어들이 발견되어 새롭게 조명될 것이다. 그것은 가까운 미래나 수십 년 후에 일어날 수 있다. 그 때까지 그 단어들은 땅 속에 감춰져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업 프로세스는 도시 내부와 그 땅 밑 공간을 만들어, 도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다. 어떤 의미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을 도시 공간 속에 새기고 언어의 가능성을 통해 그들의 발아래에 '미개척의 영역'(terra incognita)을 묘사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미래 세대에 의해 발견되기를 기다리며, 그들의 생각과 개념들을 실제 에너지 파이프에 추가하였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단어들'은 미래와 대화를 설정하는 타임 캡슐이기도 하다. 이렇게 많은 참여자들의 협업으로 이 도시에는 뿌리같이 퍼지는 언어적 구조가 생겼다. 따라서 묻힌 문구들은 어떤 역동적인 교차점을 형성하고, 비록 그 문구들이 지상에는 물리적으로 지각 가능한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지만, 참여자들의 자각(Bewusstsein)에는 계속 존재한다. 따라서, 이 도시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삶의 환경 속에서 경험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떤 상징성을 부여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 마무리 단상들

천경우의 작품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가능성에 대한 조건을 탐구한다. 그의 작품은 휴머니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서구 철학과 동양 철학의 생각들을 서로 연결하고 있다. 그는 조화와 동형성이라는 단순한 세계상을 다루지 않는다. 그의 작품들은 말없는 몸짓을 예술로 변화시키며

이 속에서 대수롭지 않은 것들의 가치를 알아본다. 그의 작품들은 서로 다르고 반대되며 약점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에게 이것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모순된 상태 속에서 풍부함으로 파악돼야 할 대상인 것이다. 철학자 칼 포퍼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태도는 열린 사회를 호소하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있다. 1983년 독일의 예술가인 귄터 위커에 따르면, "예술은 인류를 구할 수 없지만, 예술을 통해 인간애를 지지하는 행동들에 호소하는 대화를 가능케 할 수는 있다."

오해가 없도록 하자면 이렇다: 천경우의 예술 작품은 결코 정치적 선언이 아니며, 또한 예술가의 사명의식에 의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모든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각 개인을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소중히 여기는 '확장된 예술 개념'에 관한 모범적인 기능을 작동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천경우가 이해하는 예술의 과제는 우리의 지각 능력을 날카롭게 하고,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며,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감각을 발달시키며,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의 변화가 가능하도록 여기게 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방의 손을 잡는 몸짓 하나에서 시작된다.